특별기고



이달주 광주시 복지건강국장

지난해 설 명절을 며칠 앞둔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국민 들의 마음에 불안감이 깃들기 시작했고, 2주 뒤인 2월 3일 광주에서도 첫 번째 확 진사례가 확인된 이후 우리는 1년 7개월 이상 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시련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으며,이 과정을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방역국가라는 찬사를 받고있다. 이는 위기 앞에서 똘똘 뭉쳐함께이겨나가는 성숙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의료진의 헌신적인 사투, 그리고 방역당국자를 비롯한 우리 모두의 노력과희생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광주시의 경우 전국적으로는 물론

코로나19를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극복해가는 광주

세계적으로도 가장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대한 대응을 잘하고 있는 모범적인 도시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8월 16일 세계적인 분자생물학자이자 미국 과학자연맹 회장을 역임한 알리 누리 박사(Dr. Ali Nouri)가 '대한민국 광주시의 방역체계를 세계 각국이배워야 한다'고 SNS를 통해 알리면서광주 방역시스템이 크게 주목받고 있는것이다.

선제적 · 효과적 확산방지 조치

최근까지 우리시의 코로나19 확진자 는 특·광역시 중 최저 수준이고, 국내 발 생 확진자 및 사망자도 인구대비 최소 숫 자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백신 접종률이 최상위권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 이다

우리시는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에서 가장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온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고위험군 종사자의 선제·주기적 검사 의무화, 해외입국자의 선제적 검사, 자가 격리 해제 전 검사, 시청 광장을 활용한 초대형 선별검사소 설치 및 매일 밤 10시 까지 검사실시, 최단시간 내 결과 통보 등 많은 사례들이 제도화되고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민관공동대책위원회 구성과 모범적인 운영, 초창기 대구의 어려움을 함께한 달 빛병상나눔도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손꼽 히고 있다.

올여름 수도권에서 촉발된 전국적인 4 차 대유행의 거센 흐름과 휴가철 영향 등 으로 우리시 또한 확진자가 늘어 시민들 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지만, 최선을 다해 이 유행의 고베를 잡아 안정세를 회복하 도록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확산 세가 누그러질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에는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들의 확진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주시하 여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종사자의 코로나 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고, 이들 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파악, '찾 아가는 이동 선별검사소와 접종센터'를 집중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등이 고달픈 타국살이를 하면서 열악한 환경 속에 거주하며 겪을 수 있는 집단감염 위험에서 해방될 수 있 도록 하고 지역사회 전체의 감염률도 낮 추고자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검사 건수가 급증하고 확 진자 수도 증가하는 것은 더 큰 위험을 방 지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그들이 우리 사회구성원으로서 함께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 각한다.

질환이 깊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수 있으리라 기대하면서.

증상 치료만 할 수 없듯이, 지금 당장 확 진자 숫자가 늘어나더라도 열악한 환경을 찾아 핀셋검사를 강화하고 예방접종을 하 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상회복 앞당겨지도록 최선

우리시는 앞으로도 조금만 방심하면 둑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긴장의 끈을 바짝 조여, 우리 시민들의 일상회복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이다.

성과도 많았지만 시행착오 또한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시민들께서 의료진과 방역 당국에 보내주신 격려와 응원 메시지는 우리를 지탱해준 큰 힘이 되고 있다.

현장에서 통역지원과 각종 궂은 일에 기꺼이 참여해준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에도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린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연장되는 가운데 모두가 지치고 힘든 삶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고 밝은 미래를 기약할수 있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저력이라는 것을 깊이 느끼면서,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참여해준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고개숙여 감사드린다.

오늘은 힘들지만 가까운 날에 웃으며 오늘의 어려웠던 일들을 추억으로 얘기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면서.

사실

'윤기 흐르는 북구 임동' 개발 기대

다음달 전방과 일신방직 부지 개발 협상이 시작될 전망이다. 개발이냐 보 존이냐를 놓고 설왕설래 하는 가운데 시작되는 협상이어서 지역 안팎의 주 목을 받는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얼마 전 기자들에게 "주상복합 아파트 위주 개발은 안된다는 게확고한 신념이다. 어렵기는 하겠지만 시민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형태의 수익사업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전문가 합동태스크포스팀에서 제시한 안을 바탕으로 광주시의 계획안을 만들어 다음달중협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30만㎡에 달하는 전방과 일 신방직 부지를 매입한 부동산개발업 체는 이곳에 주상복합시설과 호텔, 쇼 핑몰 등을 건립하고 일부 근대문화유 산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시설에 대해 서는 역사공원 등을 구상하고 있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공공성 에 무게가 실리는 광주시 계획안과 토지소유주 간의 이해가 상충될 소지가다분하고, 특히 문화유산 보존을 놓고지역 시민단체와도 갈등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램에도 방직공장 부지를 공업 용지에서 상업 · 주거 용지로변경하는 권한이 광주시에게 있는 만큼 협상의 지렛대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곳에 광주시민 삶의 질과 윤택을 높이기 위한 시설이 무엇이냐 다. 복합쇼핑몰 등이 거론되지만 예단 할 수 없는 상태다. 방직공장 주변 거 주민들은 한때 개발사업에 기대를 걸 었다가 문화유산 보존 목소리가 커지 면서 이해가 충돌했다. 핵심 근대문화 유산이 보존되면서도 현대를 사는 시 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묘안이 절실 하다. 분명히 이곳 북구 임동지역에도 활기 있고 윤기 있는 도시민 삶의 문 화가 깃들어야한다. 광주시의 협상력 이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올랐다.

전남도립대 뼈 깎는 자성 필요하다

전남도립대의 운영 난맥상이 다시한번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저조한 취업률과 법정 정원에 한참 못 미치는 전임교원 등 지난 수년간 지적돼온 문제들에 더해 최근에는 교육부의 재정지원 대학에서 탈락, 3년간 100억여원의 재정적 손실도 불가피할 것으로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대학 정보 공시 공식사이트인 대학 알리미에 따르면 전남도립대의 졸업 생 취업률은 2018년 62.2%, 2019년 66.2%, 지난해 68.1%로 매년 60%대 에 머물렀다. 또 2018년 재적학생 2,017명 중 256명, 2019년 1,907명 중 256명, 지난해에는 1,884명 중 234명이 미복학, 자퇴 등 이유로학교 를 떠났다.

교육여건도 열악해 올해 기준 전임 교원 수는 44명으로, 법정정원 73명 의 60.27%에 불과했다. 부족한 전임 교원 탓에 초빙교원 등이 담당하는 강 의학점은 63.9%에 달했다. 전임교원 의 연구실적도 저조해 지난해 44명의 국내 연구재단 등재지, 국내발간 학술 지, 국제 학술지 등 논문실적은 총 6.4건에 그쳤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최근에는 교육부의 2021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평가 결과 일반 재정지원 대 학 대상에서 탈락해 국비사업이 3년 간 제한받게 됐다. 일반 재정지원 제 외로 한해 37억원의 재정 손실과 이미 지 하락 등 대학 경쟁력 저하가 불가 피한 상황이다.

전남도립대는 지역과 국가에 기여 하라는 200만 도민의 여망과 신뢰를 바탕으로 설립됐다. 전남도가 운영하는 호남 유일의 공립대학이기도 하다. 전국 최초 100만원 이하 반값 등록금 등 그동안 나름의 성과도 내왔다. 학과 통폐합 등 더 늦기 전에 강도 높은 체질개선과 구조조정에 나서야하는 이유다. 전남도와 도립대 구성원의 뼈를 깎는 자성과 분발이 필요한

기고

안전사고 예방 기틀 다진 국가안전대진단



윤건열 광주시 사회재난과장

많은 사람들이 안전점검은 쉽게 이해하면서도 안전대진단에 대해서는 생소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 안전대진단이 안전점검의 또 다른 이름인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국가안전대진단은 2015년에 재난예방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처음 도입된 안 전점검 시책이다. 그 배경을 보면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를 비롯해 대형사고가 빈 발해 안전사고 발생률이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이었다. 도시화·산업화 및 기후 변화에 따른 신종 재난안전위험이 높아졌 으며, 각종 기반시설의 노후화가 진전되 어 시설물 위험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국 민들의 안전사회에 대한 요구가 크게 증 고들이 관계자를 대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 지자체, 하지 못할 뿐이

공공기관 등이 동시에 참여해 시설물 등 사회전반에 대해 총체적인 안전점검을 실 시하게 된 것이다.

그전까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개별법에 근거해서 재난관리책임기관별 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면, 국가안전대 진단을 실시하면서부터는 개별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것과 별도로 일년 중 특 정기간을 정해 범정부적으로 민관합동안 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물론, 국기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해서 안전사고를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 다. 실제로 우리 생활주변에는 안전위험 요인이 상존해 있으며, 여기저기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 다. 지난 상반기만하더라도 공사장 추락 사고, 물류창고 화재사고, 건물 붕괴사고 등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사고로 인해 많 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가져왔다.

윌리엄 하인리히는 산업재해 사례분석을 통해 '1:29:300' 법칙을 제시했다. 1건의 대형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29건의 작은 사고와 300건의 사전 징후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대부분의 대형 사

고들이 관계자들의 무사안일로 인해 인지 하지 못할 뿐이지 사전에 예고가 있어서 안전의식을 갖고 대응한다면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안전사고는 안전불 감증 등으로 인해 전조증상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사 레는 너무나 많아 일일이 열거할 필요도 없을 정도다.

광주시는 물론 재난관리책임기관별로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 을 위해서 다양한 안전시책 등을 추진하 고 있다.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문화 운동이나 안전점검캠페인, 재난책임기관 별 주기적 안전점검, 국제안전도시 공인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가안전대진단도 그 중하나다.

지난해 전 세계를 펜데믹 상황으로 몰아넣은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인해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지 못했고, 올해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운영의 묘를 살려하반기로 변경해 9~11월 중에 기간과 점검대상을 축소해 중앙부처 및 지자체별로특정기간을 정해서 시행된다.

광주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 과 백신접종에 많은 행정력이 동원됨에 따라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국가안전대진 단 기간을 61일에서 33일로, 점검대상을 926개소에서 532개소로 조정해 9월 27 일부터 시행한다. 안전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안전진단 전 과정에 시민 과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할 계획이다.

내실있는 안전점검을 위해서 전기·가스 ·건축 등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안전지원 단을 구성해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안전진 단에 드론·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다. 아울러, 예방안전지도사 등 안전관리 자격 증소지 시민들로 안전관찰단을 구성해 안 전점검 지원, 자율안전점검 실천운동 전 개, 안전의식 제고 캠페인도 추진한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 애민육조 구재(救災)편에서 "장래의 환란을 미리 생각해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재난이 일 어난 뒤에 은혜를 베푸는 것보다 낫다"고 했다.

올해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이 위험 시설물에 대한 정밀한 안전점검과 더불어 시민참여에 의한 자율안전점검 실천 및 안전문화 확산을 통해 사회 전반의 위험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안전사고예방의 기 틀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광주 의료노조 파업 타협점 모색해야

기지수첩

광주 일부 의료기관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의료 공백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앞서 전남대학교병원과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 노조는 사측과 합의하고 5일 만에 정상 업무에 복귀했지만, 조 선대병원과 호남권역재활병원 노조 에서는 의료인력 확충 등 주요 안건에 대해 사측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6 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 조합원 1,600여 명 중 1,000 여명이 파업에 동참하고 있으며, 응 급실과 중환자실, 수술실, 필수인력 은제외됐다. 의사들은 보건의료노조 소속이 아니므로 파업에 참여하지 않 는다.

특히 이들 병원지부에서는 의료 서비스의 질적 하락과 부서별 차별 등 위탁운영으로 인한 폐단이 심각 하다며 호남권역재활병원을 직영으 로 전환할 것을 광주시에 요구하고 있다.

또, 보건의료인력을 확충하고 병원 의 모든 직종과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 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 비난의 화살이 오히려 조합원들에게 향하게 될까 봐 우려스 럽다. 조선대병원의 경우 '정상진료 가 어렵다'는 사전 고지를 내린 데다 입원환자들은 대부분 타 병원으로 전 원 조치 되거나 자택으로 퇴원 조치돼



최환준 사회부 기자

의료 불편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호남 권역재활병원도 조합원 대다수가 파 업에 참여하면서 의료 공백이 빚어지 고 있다.

하지만 파업에 동참한 조합원 대부 분은 코로나 방역 최전선에서 인력과 자원의 확충 없이 희생·헌신만을 강 요당하며, 묵묵히 현장을 지켜온 의료 진들이다. 환자이송 업무부터 보조업 무, 청소업무에 이르기까지 예년에 비 해 업무 강도가 높아졌지만, 어떠한 보상조차 받지 못한 채 열악한 근무 여건에서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심지 어 간호등급 편법 운영은 물론 근무복 지급·경력산정에서도 부서별로 차별 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위기 상황에서 노사는 의료 공백이 더 이상 길어지지 않도록 공공의료 인력 확충 등절충점을 찾아 대승적 합의를 이끌어내길 바란다.

독지광장

노인 울리는 '사기 범죄' 각별한 주의를

노인상대 보이스 피싱 사기 범죄가 수 그러 들지 않고 날로 피해 금액도 증가 추 세에 있다.

경찰서 112 치안종합실에서 연일 사기 범죄 신고가 끊이질 않고 접수되고 있고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예전의 사기 유형을 보면, 가족을 빌미 로 교통사고를 내서 피해보상을 이용한

▲ 응급의료센터

사기와 대출을 감경해준다고 해서 다시 저리 대출을 요구한 사기로 입금을 하도 록하고 사기를 했으나, 요즘은 자녀가 핸 드폰을 손상시켜서 통화가 안되니 현금 임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화했다.

또 무작위로 일반전화나 핸드폰으로 통화해 노인을 상대로 전화통화 하며 피해 자를 피해장소로 유인해 현금을 송금하는 방식을 벗어나서,아예 돈뭉치를 가지고 와서 접선 장소 옆에 놔두고 가게 한 후 사기범이 현장 주변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돈을 가져가는 방식의 사기 수법이 생겨 났다.

피해자가 파출소나 경찰관서에 피해사 실을 신고하면서도 자신이 왜 당시에 사 기범에게 당했는지 이해가 안간다고 하소 연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크 다. 보이스 피싱 사기범들의 상상을 초월

1989년 6월 29일 창간

회장 朴哲弘

대표전화 062) 720-1000

정 치 부 (062) 720-1060~62

경 제 부 (062) 720-1066~67

동부권본부 (061) 743-4200~01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사 회 2 부 (062) 720-1043

문 화 부 (062) 720-1071

사 진 부 (062) 720-1040

사회체육부 (062) 720-1050~53 | 전 산 실 (062) 720-1033

기획탐사부 (062) 720-1045~46 | 관 리 국 (062) 720-1012

중한 재산을 한순간에 앗아가는 사기범들을 조심해야 한다. 경찰도 악덕 사기범을 최대한 수사·검 거해 노인 상대한 사기 피해를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고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홍

한 방법을 동원해서 시골에서 맛있는 음

식 안먹고, 좋은 옷 사입지 않고 아낀 소

노인들은 절대 사기범과의 전화 통화 는 금물이며 끊어버리고 재산상 손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를 하고 있다.

전남매일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金善男

논 설 실 (062) **720-1006**

월 간 국 (062) 720-1007

판 매 국 (062) 720-1004

사 업 국 (062) 720-1011,1099

광 고 국 (062) 720-1016~17

우) 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98 (사동)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김주영 함평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구독 신청 및 배달안내 720-1004, 010-4601-5323

광고문의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간)

편집국장 姜聲秀

• TEL (062) 720-1050~53

사회부장 010-5601-2219

FAX (062) 720-1080

E-mail jndn@chol.com

• TEL (062) 720-1016~17

• E-mail jnmi1000@hanmail.net

• FAX (062) **720-1020**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기상예보	131
▲ 응급질병상담	1339	▲ 법률구조상담	132
▲ 미아・가출인 신고	182	▲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222

2-5666 ▲ 여성 긴급전화 1366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수도 고장신고 121 1577-1391 ▲ 전기고장 신고 123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89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 노인보호전문기관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1339